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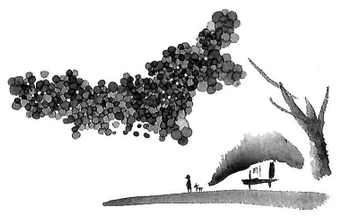
정찬주 작가의
법정 스님이야기
⑲ 후회스러운 선물

본래 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낙향한 지 17년째다. 산중생활의 호사 중에 하나는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별도 계절에 따라 그 모습이 다르다. 봄밤의 별은 오순도순 따뜻하다. 여름밤의 별은 물소리처럼 돌돌돌 소리가 나는 듯하다. 가을밤의 별은 산짐승의 맑은 눈처럼 또록또록하다. 겨울밤의 별은 찬바람, 기러기 울음소리에도 파르르 떠는 듯하다. 이처럼 별의 모습은 계절에 따라 다른 느낌을 준다. 그러나 어느 계절의 별이든 별은 아름답다.

나는 별을 보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밤하늘이 왜 아름다운가' 이다. 샛별을 보시고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나는 나대로 '아!' 하고 무릎을 쳤던 적이 있다. 밤하늘이 아름다운 까닭은 크고 작은, 밝고 희미한 별들이 모두 제자리에서 반짝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아름다움이란 제자리에서 자기 몫을 다하는 그 자체가 아닐까? 그럴 때의 실존은 아름답지 않을 수 없다.

언젠가 나는 인사동 골동품 가게를 지나다가 가야토기를 두 점 산 적이 있다. 월급봉투를 털어 샀기 때문에 아내에게 한 소리를 들었다. 마음에 들면 한 점만 사야지 왜 두 점을 샀느냐는 잔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내가 두 점을 산 까닭은 법정 스님께 선물하고 싶어서였다. 평소에 스님은 화려하고 번지르르한 그릇보다는 꾸밈이 없는 질박한 그릇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러스트 · 정윤경

나는 날을 잡아 설레는 마음으로 불일암을 가기 위해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다. 가야토기가 깨질세라 비닐을 몇 겹으로 둘둘 말아 박스에 넣어 들고 갔다. 불일암에 도착하여 차방에 들어가 인사를 드리고 난 뒤 박스를 열고 비닐을 풀었다.

"인사동을 지나다가 가야토기가 마음에 들어 사 왔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표정은 시큰둥했다. 이윽고 가야토기가 그 자태를 드러냈을 때도 스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셨다.

"토기는 다 무덤에서 나온다던데?"

"신분이 높은 사람의 무덤에서만 나온다고 합니다."

스님께서 고개를 저으며 한 말씀하셨다. 물건은 제 자리에 있어야 빛이 나는 법이라며 토기도 무덤에 있어야 제 값을 발휘한다고 충고를 하셨다. 나는 다시 가지고 돌아가라는 말씀인 줄 알고 당황했다. 그러자 스님이 나를 안심시켰다. "가지고 온 것이니 놓고 가세요."

차를 마시며 스님께서 한 마디 더 덧붙였다. 요즘 도회지 찻집을 가보면 문짝이 장식용으로 벽에 걸려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요강이 천정에 붙어 있는 날이 올지 모르겠다며 씁쓰레하셨다.

그러고 보니 물건들이 제 자리에 있지 못한 것은 비정상이었다. 물건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듯했다. 내가 가져온 토기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았다. 망자의 것이지 내 소유가 아니라는 자책이 들었다. 선물을 하고 후회해보기는 처음이었다.

안거 기간 신도들도 함께 수행 점검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동안거 맞아 수행문화 혁신 나서

11월 29일 신도간담회서 결의
수행일지 보급 · 점검문화 정착
"기복 문화서 수행 실천 문화로"



조계종 중앙신도회 및 수도권 신도회 임원들을 비롯한 불자대중들이 이날 받은 붓다로살자 수행일지를 들고 활짝 웃고 있다. 이날 신도들은 동안거 기간 집중수행과 점검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계종 신도들이 동안거를 맞아 각 가정에서 수행 정진을 점검하는 신행혁신운동에 적극 나선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11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7수도권 신도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영남과 호남, 충청권역에 이은 이날 간담회는 중앙신도회가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권역별 간담회의 총괄 행사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비롯해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이금옥 직할교구신도회장, 최성민 제2교구 신도회장 등 200여 신도회 임원 및 대중들이 참석했다.

이기흥 중앙신도회 회장은 "불교에 대한 사회의 우려의 목소리에도 무사히 총무원장 선거를 치르고 종단이 안정기에 다시 접어들었다. 이제 신도들이 활발한 신행활동을 바탕으로 사회적 역할을 통해 불교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섰으면 한다"며 "지난해 광화문에서 진행한 금강경 독송회와 같이 불자들의 신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신행 행사를 중앙신도회에서 기획해 추진해 나가겠다. 이번 수행일지 보급과 점검을 계기로 새로운 신행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서는 안거 기간에 맞춘 신도 수행일지 작성 및 점검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으며 조계종 포교원이 발간한 '붓다로살자' 개정판이 보급됐다. 붓다로살자 행복여행 수행일지에는 특별정진기간을 설정해 100개의 칸에 매일 수행사항을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중앙신도회 측은 "올해 동안거 결제일인 12월 2일부터 동안거 해제일인 3월 2일까지 수행 사항을 담은 일지를 공모하기로 했다"며 "포교원장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이 수행사항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손편지로 서원을 써서 기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강연을 한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이번 수행일지 보급과 수행 점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홍 스님은 "불교는 위기마다 혁신을 해왔고, 불자 인구 감소의 위기 속에서 신행혁신은 더 없이 중요한 과제"라며 "그 기반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100일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수행을 정해, 일지에 매일 사항을 기록하고 점검하는 신행 형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예경, 지계, 보시, 인욕, 전법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속 수행 목표를 쓰고, 진행을 점검하면 자신이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했다.

간담회 후 이금옥 직할교구신도회장은 "이번 신행일지 보급을 시작으로 신도들의 활발한 신행활동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각 사찰에서 불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접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묵담대종사 향훈 · 가르침 재조명

〈묵담대종사, 그의 선 · 교 · 율〉 출판 학술대회

"450여종의 친필노트에서 초기불교, 대승불교, 선사상 등을 시대와 학파별로 사상과 개념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감동받았다." "어떤 상황서도 중시해야할 가치인 화합을 강조하며 율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 "묵담 대종사에게 있어 불교의 현대화는 근대 용성에서 시작된 한글화와 광복 후 종단의 역경 사업을 계승하는 것이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불교의 생활화가 이뤄진다고 믿은 선지식이었다."

묵담대종사문도회 주최
학자 16명, 논문 발표도

11월 25일 제주도 사회복지법인 춘강 대강당서 묵담대종사문도회(대표 수열 스님) 주최로 열린 〈묵담대종사, 그의 선 · 교 · 율〉 출판 봉정식 및 학술대회서 쏟아진 묵담 스님에 대한 찬사들이다.

이 자리에서 묵담 스님 연구에 주도적 역할을 한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는 "법랍 75년 동안 묵담 대종사가 시대별, 지역별 불교를 고구정녕하게 정리했음에도 그동안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한 것에 안타깝다"고 이번 연구에 의의를 표했다.

묵담대종사문도회 대표 수열 스님은 "이 책자는 불경스럽지만 스님 열반 후 15년 만에 문집을 발간했고, 대종사의 사상과 소장품 가치를 16명의 학자들이 발굴해 빛을 보게 됐다"며 "이 책을 통해 큰 스님의 법력과 법향이 후손과 불자들에게 수행 지침이 됨과 동시에 진정한 묵담 대종사님의 선양 사업으로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도 축사를 통해 "탄신 121주년과 입적 36주년을 맞는 묵담 대종사는 한국불교사에 보배 같은 금강송으로 경율론 삼장을 실참한 청정 법신"이라며 "현 한국불교는 선 일변도에 치우쳤지만 교학과 수행을 겸비한 묵담 대종사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 후손들이 큰스님의 뒤를 잇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동한 춘강 이사장도 환영사를 통해 "40여 년 전 담양 용화사서 묵담 큰스님에게 감화돼 제자로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자리잡고 있었다"며 "이번 대작불사에 종단 대덕 스님과 학자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신데 더욱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묵담대종사, 그의 선 · 교 · 율〉은 제1부 대종사의 사상편과 제2부 대종사의 소장유품 연구편으로 구성돼 있다. 제1부 사상편에는 대종사의 사상을 연구한 논문 9편이, 제2부 소장유품 연구편에는 연구 논문 5편과 불서와 외서 목록 1664책이 담겨 있다.

김주일 기자

"현실 절감… 간화선 대중화에 진력"

수불 스님, 입장문 발표… 희망연대 등 계획 철회

지난 제35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기호 2번으로 출마했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순리대로 간화선 대중화와 세계화에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을 천명했다.

수불 스님은 11월 2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세월이 흘러 절 집안 생활을 오래하다 보니 더러 책임질 일도 생겼고, 그동안 교계에 빚진 것을 갚아야 하겠다는 마음에서 종단의 현실 속으로 뛰어들기도 했었다"면서 "하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니 제반의 상황이 소납이 감당할 수 있는 입장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다"고 저간의 상황을 술회했다.

이어 "순리대로 출가사문의 본분사로 회향하겠다. 소납은 평소의 원력대로 간화선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이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불 스님은 불교희망연대 창립 등 이후 예정된 행보들을 전면 취소했다. 실제 수불 스님과 함께 했던 선대위는 수불 스님을 고문으로 한 불교희망연대를 내년 3월 창립키로 계획을 밝혔지만, 수불 스님 측은 불교희망연대 창립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민 · 윤호섭 기자

"번뇌망상 틈 없도록 정진하라"

불기2561년 동안거 결제… 2000여 수좌 화두 들어

불기2561년 정유년 동안거 결제가 12월 2일 전국 조계종 100여 선원서 일제히 봉행됐다. 이번 동안거에는 2200여 명의 수좌 스님들이 방부를 들이고, 화두 참구에 들었다.

동안거 결제에 앞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운수납자들의 용맹정진을 당부하는 법어를 내렸다. 진제 스님은 "모든 반연은 끊고 시비장단은 내려놓고, 견성하고 말겠다는 확고한 대신심과 불타는 대용맹심을 내 화두를 챙겨라. 번뇌와 망상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쏟아야 한다"며 "한 번을 챙겨도 뼛골에 사무치는 화두를 챙겨야만 공부에 진취가 있고 소득이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동안거 결제법어 A7면〉

윤호섭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12월 29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